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나은 정부
	배포일시	2020. 3. 10(화)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과장 김용원, 사무관 조상원, 주무관 한동진 - ☎ (044) 201-4232, 4233, 4234
보 도 일 시		2020년 3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편의제고] 반려동물 안고 보안검색·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 지역 확대
[스마트 보안강화] 국제협력·항공종사자 교육 강화...항공보안 강화정책 추진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한 A씨는 보안검색을 받을 때 보안검색요원이 반려견을 손으로 만지고(촉수검색) 폭발물흔적탐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예민해져 비행기 안에서 내내 반려견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다.

B씨는 평소대로 공항에 도착했으나 당일 내린 눈으로 공항으로 몰린 승객 때문에 보안검색대 앞에 대기하는 승객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앞쪽 승객에게 가서 출발시간이 다 되어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 앞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항공보안검색을 받고,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등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가 구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보안강화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이번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안검색 및 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 강화 및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을 통해 항공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축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3월 중)이다.

② 보안검색대 혼잡·지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 설·추석 또는 일시적인 승객의 급증에 따른 보안검색대 혼잡시 평소와 같이 공항에 나온 승객은 당황하게 되거나 심하면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3월 중)하게 된다.
- 또한 평소보다 보안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③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금년 9월부터 확대된다.

- 그간 제주항공 계열사 흥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19.3월~5월)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④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 간 협력회의를 개최(11월, 서울)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 그동안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인터뷰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 12월(美 마이애미) 실시한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 회의'에서 상호인정 추진에 합의한바 있다.
- 또한, 항공보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합동* 아태지역 워크숍을 추진하고,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전문교관을 초빙하여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 *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와 점검기법 및 점검물품 제작기법 등 공유, 현장실습 실시 등
- ⑤ 이외 항공보안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한다.
 - 항공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전문가(전문임기제) 채용을 추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9월)도 개최한다.
 -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 도입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하여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조상원 사무관(☎ 044-201-4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